



<스웨덴 말뫼, 컨퍼런스 센터>

지난 2천 년, 코펜하겐과 연결되는 올레순 대교가 개통된 이래 스웨덴과 덴마크 두 나라의 교통 요지이자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은 대개 유로존의 강제로 유로화를 사용하는데 반해 덴마크는, 자기나라 화폐 즉 크로네를 사용한다.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건, 공항면세점에서 한 줌이나 되는 동전 크로네를 다 사용하려는데 지폐만 받는다.

그리고 거스름돈은 또 다시 크로네 동전으로 내주지 않는가! 온갖 바디랭귀지를 이용해 항의했더니 어쩔 수 없다는 시늉으로 여직원이 두 팔만 벌린다. 그것들이 내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는지 계속 엉뚱한 말만 한다. 그러니까 내 영어가 엉망이란 얘긴가? 애고~~ 짧은 영어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따질 수 없음을 애통해하노라. 확실히 영어는 폭력이다!



<스웨덴 말뚝 시내>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는데! 얘기가 또 엉뚱한 쪽으로 흘렀다. 스웨덴 말뚝 거리의 깨끗함과 건축양식의 세련됨, 그리고 아름다운 컬러를 말하고 싶었는데... 건축하나 하나가 다 예술이다. 같은 스타일의 건물이 거의 없어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웨덴을 방문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산한 주일 오전에 조각배만 운하의 물살을 가르며 조용히 지나간다. 나는 순간 고독했다. 사진작가인 Y는 내가 그러든지 말든지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다. 그녀를 방해하기 싫은 나는 지나가는 뱃사공을 향해, 외쳤다. 안녕하세요?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며 소리 질렀다. 그가 내게 묻지도 않았는데... ㅋㅋ.

자유여행, 와우~~ 너무 힘들다. 늘어간다는 게 이런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밤에는, 내일 아침 과연 눈이나 제대로 뜨려나, 하며 잠에 폴아떨어지지만 감사하게도 아침이면 멀쩡하니 그저 주님께 감사!

부실한 체력의 나를 위해, 친구 Y가 앱을 통해 전날 오후 답사했다는 장소 즉, 인어공주 동상을 만나러 코펜하겐 바닷가로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다. 컬러 풀한 온갖 건물들의 나열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날씨 또한 적당해서 걷기에 최적화된 날이다. 양떼구름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바다는 고요하기만 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릴 지나갔다. 바이킹의 후예답게 그들은 모두가 장신 이어서, 그들 속에 섞여 걷는 우리는 완전 꼬마다. 그 모습이 나는 웃겼다.



<코펜하겐 바닷가, 인어공주 동상>

코펜하겐에서 놓칠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인어공주 동상이다. 바닷가에 다소 쓸쓸하게 보이는 이것은, 1836년 덴마크 유명한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작품 「인어공주」의 주인공이다. 조각가 에드바르 에릭센이 1913년 80센티의 청동으로 제작했으나 몇몇 진상 고객(?)에 의해 머리와 팔이 잘려 나가는 시련을 겪었다.

심지어 폭탄 공격으로 바다에 그대로 수장되기도 했던, 오늘날 브뤼셀의 오줌누는 소년상과 함께 유럽의, 실망스런 볼거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세상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동상들을 보자고 천지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기념 촬영을 하니 말이다. 뭐 보자고 이렇듯 모여들었는지 별거벗고 있는 작은 소녀 동상하나를 놓고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 코펜하겐 바닷가!

나 역시 그들 틈에 섞여 바위 위에 알몸으로 웅색하게 버티고 앉아있는 인어공주 동상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다. 80센티면 브뤼셀의 오줌누는 소년상보다는 약 20센티 정도 크다.

어찌되었든 인어공주 동상은 덴마크의 상징이며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려고 찾아온다니... 그리고 사실 덴마크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동화작가인 안데르센과 인어공주 동상임엔 틀림없다. 이들은 엄청난 애국자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1805년 4월2일 오텐사에서 태어났다. 제화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느낌을 글로 표현했다. 코펜하겐 대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한 그는 150여 권이 넘는 동화책을 썼는데 - 시간이 애매해서 그의 고향엔 들르지 못했다. 그 점이 두고두고 아쉽게 느껴진다.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모자(母子)의 대화를 들은, 즈이 아빠 곁에 있던, 일곱 살 손자 녀석이 코펜하겐이 어디냐고 묻기에, 인어공주가 바닷가에 턱 버티고 있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자기도 공주 만나고 싶다며 공주가 몇 살이냐고 묻는다. 나중에 그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단나?

인어공주 동상을 둘러보고 나오다가 우리는 어느 고성과 예쁜 돛을 지나며 사진을 찍었으나 정확한 지명이나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 솔직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메모하지 않으면 이젠 알아도 이젠 금방 잊으니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다. 이런 일이 잦으면 진짜 꼰대가 되는 건데!

숙소로 들어와 사들고 온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슬라이스로 썰어서 얹어 실컷 먹었다. 개인적으로 엄청 사랑하는 시그니처 소울 메뉴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다. 아직도 비상식량(?)이 많이 남았다. 햇반과 고추장 그리고 또….

언니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라며 참 좋은 세상이라고 언니가 혀를 찬다. 세상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진화하니 노인네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 널 아침 우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하여 드디어 한국으로 갈 것이다, 아니 간다.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건 축복이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더더욱 큰 은혜다!

조식 후 우린 짐을 꼼꼼하게 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친구 Y 침구에서 웬 벌레가 튀어나와 무의식중에 때려잡으니 피가 터진다. 놀란 우리는 호텔 매니저를 불러 보여주었다. 그 매니저 왈, 유럽의 오래된 호텔에서 흔히 발견되는 벌레라며 안심하란다. 애구~~ 여태껏 좋았는데. 꺼림직하다며 친구가 벌레사진을 찍었다. ‘호텔 측에 반드시 공지하라고!’ 매니저에게 우린 여러번 강조하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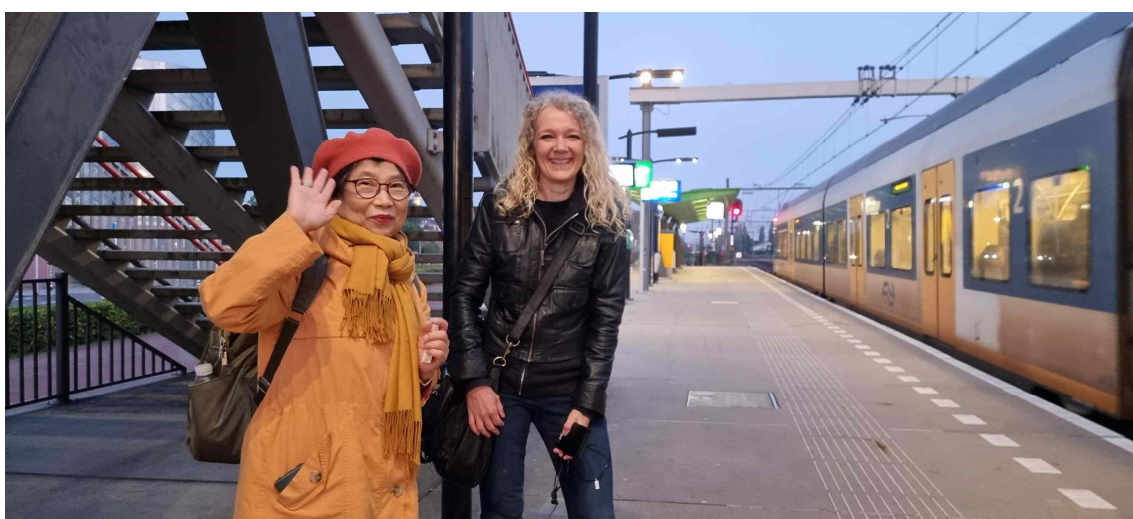
갈수록 무거워지는 캐리어를 끌고 우린 코펜하겐 중앙역으로 나갔다. 이제 겨우 코펜하겐 시내쯤은 눈감고 다녀도 될 듯한데 떠나야 한다니. 그것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코펜하겐 카스트룹 공항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 국적기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날아가면 이번 우리 여행도 막을 내린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니, 집에 반은 온 듯 긴장이 화악 풀렸다. 여기서 국적기니 영어 한마디 못해도 문제없다. 아직 탑승시간이 넉넉한데도 나는 의자에 앉아 피곤함을 달랬다. 그런데 우리 포레 은퇴자 같은, 어느 풍만한 외국인 부부가 우리 주위를 계속 맴돌았다. 뭔가 궁금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우리에게 한국 사람이냐, 고 물었다.

알고 보니 독일 사람으로 아들이 한국에 있다는데 -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 그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 간다는! 독일어라곤 당케쎄와 비떼쎄 밖에 모

르는 나와, 영어를 잘 모르는 그들과 우린 서로 주거나 받거나 - 그러거나 말거나 번역 앱을 전환 시키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여성들이 대체로 부지런하며 성실하다고 전하자, 그들도 동의한다고 웃으며 대답한다.

이왕 번역 앱 말이 나왔으니, 이 앱을 발명한 사람은 천재다. 고로 노벨상을 줘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나 같이 영어 못하는, 무지몽매하고 어리버리한 사람에겐 너무 고마운 앱이다. 하기 힘들거나 복잡한 말은 무조건 앱에 부탁하면 되니까.



<즈와넨버그 역에서 우리를 도와준 천사>

위 사진의 사연을,
앞에서 잠깐 얘기했다. 첫 숙박지 근처, 즈와넨버그 역에서 만난 천사로 - 암스테르담 중앙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야는데 - 안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만난 천사. 우린 그곳을 떠나며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못해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침, 그 역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나다니!

자유여행을 언제 또 감행할 것 인가에 대한, 내 생각에 많은 차질이 생길 듯하다. 사실 떠나기 전부터 난, 여러모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육신이 무기력증에 걸린 듯, 귀차니즘에 시달렸고 좀 우울했다. 하여 여행을 통해 반전시키고 싶었는데, 떠날 시간이 다가왔으나 여전히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망설일 틈이 없었던 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했다!

무사히 여행이 끝난 것은 오직 주님 은혜였고 내 사랑하는 친구 Y,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지독한 사랑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사실 이 여행기를 통해 조심스럽게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다. 나이 들어가며 도전하기를 겁내지 말고 산뜻하게 살아보자는 거였는데…!

이 시간까지도 아쉬운 마음은…, 위에서 얘기했듯 안데르센 고향인 오덴샤와, 구한말 고종의 명을 받들고자 우리 열사들이 갔던, 정치의 중심지 헤이그, 그리고 내가 한때 연민을 느꼈던 화가! 고흐의 고향 쾨데르트를 못가 본 것이다. 사실 시간도 여의치 못했거니와 무엇보다 영육 간에 내가 많이 지쳐있었다. 언제 또 갈지… 약간 슬퍼진다.

드디어 발톱이 빠졌는지 양말 속이 까끌거린다.

여기까지 주님 은혜로 왔다. 오직 주의 은혜로! (*)